

KTV 생방송 특급작전 '일자리 팡팡!' 격려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일자리 팡팡!' 이 취업알선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 일할 사람을 구하는 회사, 서로를 이어 주는 희망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열 배, 스무 배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사·정도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할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일자리 만들기,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